

# ‘변방’의 호남정치... 비전도 인물도 없다

지역 어젠다 발굴 못해... ‘민주당 심장’ 위상 잃고 대표 친분에만 기대  
국민의힘·진보정당도 인물난... 예비후보 등록 코앞 입지 더 악화 우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전남지역 출마 후보자들의 정치적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어젠다’를 발굴·추진할 대표 정치인을 선출하는 게 총선의 본래 목적인데도, 출마 후보 상당수가 지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어젠다 제시를 꺼려 ‘당 대표 줄 서기’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된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원까지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도 가능하다.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착용이 허용되고 통화 방식으로 본인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처럼 총선의 ‘신호탄’인 예비후보자 등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호남 정치는 변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온다.

대부분 초선인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당 대표 등 지도부 눈치를 보며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출마가 예정된 후보들 중 상당수도 당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력 등을 알릴 때도 이재명 대통령선거 캠프 활동 경력을 전면에 내세우려는가 하면, 당 대표의 ‘호위무사’라는 등 ‘이재명 마케팅’에만 몰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일부 선거구 획정과 전략 공천 등이 예상되면서, 광주·전남 일부 현역 의원들의 지도부 눈치 보기가 극에 달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때 민주당 당원 절반 이상이 호남 사람이었던 구조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호남 정

치 위상 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경선=본선’ 공식이 있는 광주·전남의 정치 특성상, 주류에 소속되고 지도부에 ‘줄 서기’만 잘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점도 호남 정치의 ‘변방화’를 부추기는 핵심 이유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 예정 후보들이 해매고 있는 사이 서진(西進)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광주 최소 1석, 전남 2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광주·전남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냈지만, 고질적인 인물난이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 평가’나 마찬가지로는 점에서 호남지역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인물이 절실하지만, 현재까진 눈에 띄는 출마 예정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소수정당 역시 거대 양당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실질적인 정책 발굴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3지대인 신당과 관련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역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인물이 없는 탓에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형국이라는 게 지역 정치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광주·전남 정치의 ‘변방화’ 현상은 수도권권을 제외한 지방의 한계이자 전국적인 문제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지방 전체가 무기력해지면서 의제 설정을 중앙에서 주도하고 있다”며 “의제 설정의 구조가 전부 중앙 발산으로 바뀌어서 지방 정치인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시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는 경우에도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일까지 직을 그만뒀어야 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꼭 합격하고 말거야” 7일 광주시 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한 수험생이 다음 달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예체능계열 실기시험에 대비해 10m 왕복달리기를 연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킬러’ 없다지만... 국영수 모두 ‘불수능’

표준점수 크게 상승  
광주 학생들 상당히 고전한 듯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강조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국어·수학·영어영역 모두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7면〉

EBS 등 전문가들이 수능 직후 실시한 설문에서 수험생 10명 중 8명이 ‘시험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결과가 실제 결과로 드러났다.

‘킬러문항’ 배제로 인한 불수능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변별력을 강화한 것이 수험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위권 수험생들도 상당히 고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7일 발표한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자 표준점수)을 보면 국어 난도가 작년 수능보다 크게 높아졌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

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만점자의 표준점수, 즉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한다.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2024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작년 수능(134점)보다 16점 상승했다.

2019학년도 수능(150점)과 함께 역대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 가운데 가장 높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구분점수(등급 컷) 역시 133점으로 지난해(126점)보다 7점 상승했다. 만점자 수는 64명에 불과해 작년(371명)보다 크게 줄었다.

수학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으로, 지난해(145점)보다 3점 상승했다. 만점자 수 역시 612명으로 작년 수능(934명)의 3분의 2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1등급 구분점수는 133점, 2등급 구분점수는 126점으로 모두 지난해 수능과 같았다.

국어와 수학영역 최고점 차이는 지난해 11점에서 올해 2점으로 줄었다. 지난해 최고점은 국어

134점, 수학 145점이었지만, 올해는 국어 150점, 수학 148점이다. 수학도 어려웠지만, 국어는 훨씬 더 어려웠다는 얘기가.

영어영역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4.71%(2만843명)였다.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낮다. 결국 국어·수학·영어영역 모두 최상위권 수험생에게는 지난해보다 까다로운 시험이었다.

광주지역 상위권 주요과목 등급별 비율도 전국 중위권에 머물렀다. 국어의 경우 1.2등급 비율이 7.3%로 전국 8위, 영어는 18.8%로 9위, 수학은 8.3%로 전국 5위였다. 전남은 최하위권이었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8일 교부된다. 오창욱 광주진협회장(대동고 진학부장)은 “수험생들의 개인별 성적통지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번 수능에서 광주 학생들이 상당히 고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위권 학생들이 특정 점수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중위권 학생들의 대학진학에 변수가 많아 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서울의 봄’ 쿠데타 주역들 5·18 일 열어야 ▶6면  
복스 - ‘사랑학 수업’ ‘민중의 시대’ ▶14·15면  
무관의 호랑이를 ‘남의賞’ 쳐다보기 ▶18면

## 무안국제공항이 살아납니다! 서남권이 발전합니다!

국제공항이 살아나면 관광객 OK! 기업투자 OK!!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군 공항이 만나 진짜 명실공히 광주·전남의 관문공항으로!

- 무안국제공항은 모든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 광주 국내선을 이전해야 국제선도 활성화됩니다.
- 군 공항까지 통합하면 서남권이 더 크게 발전합니다.
- 군 공항 소음 대책 확실히 마련합니다.
- 주민설명회에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